

보도설명자료 (’20. 10. 1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·한전은 UAE원전건설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(10.13,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산업부·한전은 UAE원전건설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◇ 10월 13일 연합뉴스 <한국 수출 UAE 원전서 코로나 집단발병... 확진자 파악 ‘뒤틀림’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한전, 산업부는 UAE 당국의 정보 통제 이유로 바라카 원전 한국인 확진자 관리에 부실 대응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·한전의 입장

- 산업부·한전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속 주시하며 양성판정자 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 - 다만, UAE당국의 방침 및 ENEC과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UAE측 동의 없이 양성판정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임
-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인 직원은 외부 격리시설에서 추가검사를 받고 있으며,
 - 추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일부 직원은 현장으로 복귀 또는 복귀예정이며, 나머지 직원은 검사결과를 대기 중임
- 산업부·한전은 바라카 현장과 상시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: 원전수출진흥과 신성주 과장 (044-203-5330)

최경신 서기관 (044-203-5331)